

여자 프로배구 광주 '시페퍼스' 오늘 뜬다



광주시청 대회이실서 창단식 김형실 감독·16명 선수들 유니폼 공개하고 기자회견 TV·포털 통해 현장 생중계도



오늘 광주시청에서 창단식을 갖는 시페퍼스 여자배구단 선수들.

<시페퍼스 제공>

프로배구 불모지 광주에서 여자 프로배구단이 공식 창단한다.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 시페퍼스(구단주 장매튜)가 30일 광주시청 대회이실에서 창단식을 열고 광주시 연구 배구팀으로서의 첫 발을 댄다. 시페퍼스는 여자 프로배구 7번째 구단이다.

이날 창단식은 창단 세리머니, 2021-2022 정규리그 홈-어웨이-리베로 유니폼 디자인 공개, 감독 및 선수단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된다.

시페퍼스 창단은 광주 지역민들이 결집된 여망이 일궈낸 성과다.

지난 4월 한국배구연맹(KOVO)이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구단 창단을 승인한 뒤, 연고지 후보로 광주와 경기도 성남시가 떠올랐다.

광주는 연고지로 선정되기에 다소 불리한 점이 많았다. 기존 여자 프로배구단은 서울·수원·인천·화성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페퍼저축은행도 사실상 수도권에 영업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는 '정성'으로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의 마음을 돌려세웠다.

광주 프로배구 유치추진단은 영주체육관 등 경기장 인프라와 두터운 팬층, 광주·전남·북을 아우르는 팬덤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치평초·광주체육중·광주체고, 목포여상 등 우수한 선수육성 시스템도 큰 장점이었다.

수차례 이어진 설득과 현장실사, 눈의 끝에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5월 광주로 연고지를 확정했다. 당시 장매튜 대표는 "광주의

열정을 보고 개인적으로 욕심이 났다. 이런 곳에서 경기하면 팀도 잘 할 것 같고, 광주의 열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페퍼스는 초대 김형실(70) 감독 체제로 출발한다.

김 감독은 배구 코트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다. 2011년 여자국가대표팀을 맡아 2012년 런던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36년 만에 두 번째로 4강까지 이끌었다. KT&G 사령탑 시절 V리그 원년(2005년 리그) 우승하기도 했다.

지도자로 화려한 경력을 쌓은 그는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을 스마트(Smart), 스피드(Speed), 스트롱(Strong) 3박자를 갖춘 팀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시페퍼스는 신생팀 특별지명을 통해 박경현·이한비·지민경

(이상 레프트), 최가은·최민지·하혜진(이상 센터), 구슬·이현(이상 세터) 등을 영입하며 팀을 꾸렸다. 헝가리 출신인 외국인 선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도 지명했다.

이어 지난 9월 7일 KOVO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에서 신생팀 우선지명 권한으로 박시랑(세터)을 비롯해 박은서·김세인(이상 레프트)·서재원(센터)·문슬기(리베로)·이은지(수련선수)를 영입하고, 마지막으로 레프트 박경현을 추가 영입하며 16명의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장매튜 대표는 "한국배구연맹과 각 구단, 광주시의 도움에 힘입어 순조롭게 창단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며 "신생팀으로서의 도전과 패기를 바탕으로 스포츠팬들과 광주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팬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단식에는 장매튜 대표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무철 KOV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창단식은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을 찾을 수 없는 팬들을 위해 KBS N Sports와 네이버 스포츠 포털에서 생중계된다. 또 시페퍼스 인스타그램을 통한 Q&A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페퍼스 선수단은 창단식 다음 날인 10월 1-2일 광주체고, 목포여상 등과 연습경기 및 합동훈련을 통해 홈경기장인 페퍼스 타디움(PEPPER STADIUM·영주체육관)에서 첫걸음을 디딘다. 당초 계획된 광주지역 팬 초청 및 사인회 등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방침 및 안전을 위해, 추후 다른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실패하면서 배우는 윤중현·김태진

윤중현 "다양한 변화구 필요해" 김태진 "송구실수 줄이기 노력"



KIA 타이거즈의 투수 윤중현과 내야수 김태진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가을을 보내고 있다.

윤중현과 김태진에게는 잊지 못할 2021 시즌이 흘러가고 있다. 대졸 4년 차 윤중현은 올 시즌 꿈에 그리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컨트롤로 어필하면서 선발 자리도 꿰찼다. 선발로 프로 첫 승을 올린 그는 3연승도 내달렸다.

부상과 이적, 부진 등 지난 시즌 많은 일을 겪었던 김태진은 올 시즌 '부상도 실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전 3루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꾸준하게 경기에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채워야 할 것도 많은 두 사람은 나름 미래를 위한 고민도 잊지 않고 있다.

공격적인 피칭이 돋보이는 윤중현은 앞선 등판을 통해 많은 공부를 했다.

윤중현은 지난 24일 두산전에서 5회는 채워지만 8피타 1볼넷 3탈삼진 3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윤중현



김태진

김태진은 지난 26일 SSG와의 홈경기에서 생애 첫 만루포를 날리면서 올 시즌 목표 중 하나였던 '0홈런' 달성(?)에 실패했다.

이상한 목표지만 "홈런에 욕심 내지 않고, 상황에 맞는 스윙과 공격으로 팀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목표였다.

"올 시즌 어쩌다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0홈런'을 목표로 했다"며 웃은 김태진은 "홈런을 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안타를 때리려고 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실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목표다. '파워 히터'와는 거리가 있는 만큼 김태진은 생존을 위해 방향이를 짧게 잡고 있다.

김태진은 "방망이를 한 주먹 정도 위에 잡는다. 한 주먹보다 더 올라갈 때도 있다. 150km 이상의

강속구 투수가 나오면 반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이자 약점이었던 송구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꿨다. 첫 만루홈런 뒤 이어진 수비에서 2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기승 줄이기로 했지만 올 시즌 중반부터 눈에 띄게 김태진의 송구가 좋아졌다.

김태진은 "처음부터 정확히 못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걱정하면서 정확히 던지려고 하니 실수도 있었다"며 "어차피 송구 안 좋으니 까 못 던지는 것 자신 있게 하자고 생각을 바꿨다.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세계 던지자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 던지는 포인트도 알게 되고 송구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ML 입성 이후 한 시즌 최다 10패

양키스전 4.1이닝 3실점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메이저리그 입성(2013년) 이후 한 시즌 최다인 10패(13승)를 당했다.

류현진은 29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4.1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6안타를 내주고 3실점 했다.

삼진은 3개를 잡았고, 볼넷 1개를 허용했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4.34에서 4.39로 더 나빠졌다.

이날 토론토는 양키스에 2-7로 패했고, 류현진은 패전 투수가 됐다. 2017년 5승 9패를 당했던 류현진은 올해 30경기에서 10패를 당해 달갑지 않은 개인 한 시즌 최다 패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메시, PSG 이적 첫 골 ... "행복하다"

챔스 맨시티전 2-0 썬기골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이적 후 네 경기 만에 첫 골을 터트린 리오넬 메시(34)가 마침내 활짝 웃었다.

메시는 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와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29분 팀의 2-0 승리를 확정 짓는 썬기골을 터트렸다.

공을 몰고 중앙으로 돌파한 그는 킬리안 음바페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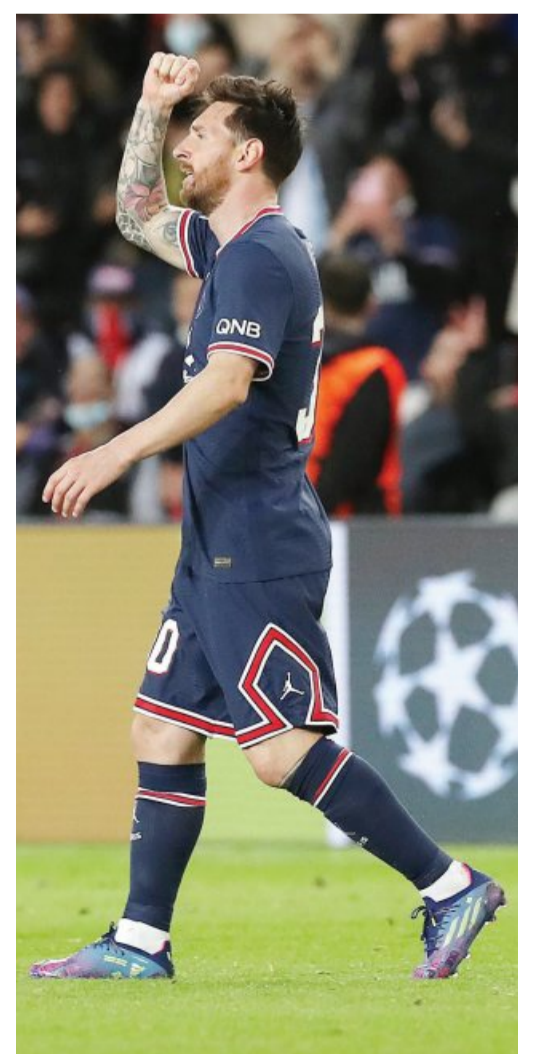
지난달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떠나 PSG 유니폼을 입은 메시가 새 팀에서의 네 번째 경기에서 터트린 데뷔골이다.

경기 뒤 메시는 "골을 넣어 몹시 행복하다"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클럽 브뤼헤(벨기에)와 무승부(1-1)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겨야 했다. 지난 시즌 UCL 결승까지 갔던 강한 팀을 상대로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전까지 메시는 PSG에서 공식전 3경기만 소화했으나, 공격포인트는 없었다.

메시는 "최근에 경기를 뛰지 못했고, 홈 경기장에서는 단 한 경기를 지냈다. 오늘이 두 번째다. 새 팀과 새로운 동료들에 점차 적응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옛 제자에게 일격을 당한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은 "메시가 PSG에서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시

/연합뉴스